

1. ㉠에 들어갈 환자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네, 별다른 불편은 없었어요.
- ②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렸어요.
- ③ 맛은 좋았지만 양이 적었어요.
- ④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아팠어요.

2. 협상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 ② 특정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하기 위해
- ③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 ④ 사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익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아예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 ① 색연필 ② 소나무 ③ 말소리 ④ 나뭇잎

4. 다음의 설명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 ① 바다 ② 손발 ③ 둘다리 ④ 봄나물

5.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뛰다, 잡다, 던지다, 흔들다

- 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 ②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 ③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 ④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6.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 중 주성분이 아닌 것은?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주성분이라고 한다.

- ① 강아지는 집에서 논다.
- ② 우리는 점심을 먹는다.
- ③ 친구가 소방관이 되었다.
- ④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7. ㉠~㉣ 중,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동생: 형, ㉠ 할머니께서 지금 마당으로 나오라고 하셔.
 형: 응? ㉡ 할머니께서 마당으로 나간다고?
 동생: 그게 아니라, ㉢ 할머니가 형한테 나오시래.
 형: 알았어. ㉣ 내가 지금 바로 가지겠다고 말해 줄래?

- ① ㉠ ② ㉡ ③ ㉢ ④ ㉣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칭찬 댓글 달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은영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공유 169개

요즘 인터넷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우리 모임에서는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칭찬 댓글을 작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주는 칭찬이 많아지면 악성 댓글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 그렇지만 너무 많은 칭찬은 자제해야 합니다. ㉣ 우리 모임의 게시판에 서로를 칭찬하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댓글 4개

유정 길거리의 쓰레기를 스스로 줍는 은석님을 칭찬합니다.

승진 년 뭐니? 잘난 척하지 말고 너나 잘해.

순남 저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홀로 사는 어르신들 위해 봉사하는 정란님을 칭찬합니다.

정란 칭찬 감사합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제안하신 은영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8. ㉠~㉣ 중, 글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9. 윗글에서 캠페인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 ① 유정 ② 승진 ③ 순남 ④ 정란

10. 다음은 독도를 소재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조사 내용을 찾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독도를 바르게 알자.
○ 조사 내용
- 독도의 위치 - 독도의 역사
- 독도의 자원 - 독도의 생물

- ① 독도 자원 조사 보고서
- ② 독도의 지리와 관련된 서적
- ③ 독도 방문객 수 월별 그래프
- ④ 독도에서 관찰된 동식물 사진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11. ㉠~㉣ 중,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2. 위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 ② 의성어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 ③ 동일한 언어 표현을 반복하였다.
- ④ 묻고 답하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13.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뱃잎처럼 푸른 바다
- ②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③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 ④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기란 독감 바이러스 외의 다른 바이러스로 생기는 호흡기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이다. 예전에는 콧물,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을 포괄적으로 감기라고 불렀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원인이 확실한 것들은 따로 부르고 있다. 현재까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비롯해 최소 1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콧물, 기침, 재채기가 나고 목이 아프면 무조건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이비 감기'가 있다는 얘기이다. 병이 다르니 치료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감기와 비슷하나 실제로는 다른 사이비 감기를 살펴보자.

감기와 가장 혼동하는 질병에는 '독감'이 있다. 독감은 종종 '감기가 악화된 것' 또는 '감기 중에 독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감기와 독감 모두 콧물, 기침이 나는데, 며칠이 지나면 낫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심할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하고, 오한, 고열, 근육통이 먼저 나타난다. 또 ㉠ 감기가 시기를 타지 않는 것과 달리 독감은 유행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독감은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감기는 백신을 만들 수 없지만 독감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하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단,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노약자는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 백신을 미리 맞되, 백신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3~4개월 전에 맞아야 한다.

- 김정훈, 「감기란 무엇인가」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다.
- ② 감기 중에 독한 것 또는 악화된 감기가 독감이다.
- ③ 독감과 감기는 백신으로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하다.
- ④ 유행성 감기 백신은 평생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된다.

15. ㉠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 ② 대조 ③ 인과 ④ 과정

16.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심상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② 정보 획득에 중점을 두어 읽는다.
- ③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하며 읽는다.
- ④ 여정, 견문, 감상을 구별하며 읽는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기업 광고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을 소재로 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아메리카 대륙 상륙이 무어 별거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자, 콜럼버스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워 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콜럼버스는 달걀을 집어 들고 꺾 하니 그 밑동을 깨서 세웠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일을 해 놓고 보면 별것 아닌 듯 생각하기 쉽지만, 언제나 ‘최초의 발상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숨겨져 있다.

달걀의 겉모양은 타원형이다. 애초부터 세울 이유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타원형의 달걀에는 둥지에서 구르더라도 그 둥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 고안된 생명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만일 달걀이 타원형이 아닌 원형이었다면 한 번 구를 경우 자칫 둥지에서 멀리 ㉡ 이탈하기 쉬울 것이며, 모양이 모나게 각을 이루고 있다면 어미 새가 품기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달걀의 타원형은 그 속의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방어선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달걀을 세워 보겠다는 것은 곧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법칙에 맞서는 행위인 것이다. 먹기 위해서도 아니면서, 둥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생명체를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굳이 ㉢ 고정해 버리겠다는 생각이 ‘콜럼버스의 달걀’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상식을 깬 ㉣ 발상 전환의 모델 이라기보다 소중한 생명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탐욕적이고 반생명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 김민웅,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

1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 ②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역사 속 인물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전문가와 면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8. 윗글의 글쓴이가 가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걀은 애초부터 세울 이유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 ② 달걀의 타원형은 생명을 지키는 원초적 방어선이다.
- ③ 달걀의 모양이 각을 이루고 있다면 어미 새가 품기 어렵다.
- ④ 달걀을 세워 보겠다는 것은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안: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 ② ㉡ 이탈: 둘 이상의 흐름이 한데 합하여 흐름
- ③ ㉢ 고정: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
- ④ ㉣ 발상: 어떤 생각을 해냄. 또는 그 생각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를 모시고 살고 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바칠 것을 약속한 심 봉사는 근심에 빠진다. 아버지를 위해 심청은 인당수에 바칠 제물을 찾고 있던 뱃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제물이 될 테니 쌀 삼백 석을 달라고 부탁한다.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으며 탄식하였다.

“효성이 참으로 가극하구나. 불쌍한지고!”

그리고 즉시 ㉠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날라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화주승께 표를 받아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것은 염려 말고, 오는 ㉡ 보름날이 배 떠나는 날이니 차질 없도록 하오.”

“큰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어찌 약속을 어기오리까. 그 또한 염려하지 마소서.”

심청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쭙었다.

심 봉사가 깜짝 놀라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A] “건넌마을 장 정승 댁 부인께서 지난달에 저를 수양 딸로 삼으려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대답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없어, 노부인에게 말씀드려 쌀 삼백 석에 수양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심 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만 반겨 듣고 좋아하였다.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느냐. 한 나라 재상을 지낸 분의 부인이라 역시 다르구나. 복을 참 많이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언제 그 ㉢ 댁으로 가느냐?”

“오는 보름날 데려간다 합니다.”

“어허, 거 참 날도 잘 잡았구나. 여봐라, 청아! 그러면 나는 어쩐다고 하더냐?”

“아버지도 함께 모셔 간다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분이 눈먼 나를 혼자 남겨 두겠느냐? 참으로 잘 되었다. 가만있자, 너는 가마를 태워 데려갈 것이다마는, 나는 무얼 타고 갈까? 김 ㉣ 생원 댁 암소나 얻어 타고 갈까?”

그날부터 심청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영 이별할 일과 사람으로 세상에 나서 열다섯 살에 죽을 일에 정신이 아득하였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20. 윗글의 [A]에 담겨 있는 ‘심청’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의 고민을 과장하려 한다.
- ② 수양딸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
- ③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한다.
- ④ 뱃사람들을 속이고 도망치려 한다.

21. ㉠~㉣ 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2. 윗글에 대한 다음의 감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눈을 뜨게 해 준다는 말에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심 봉사의 심정이 이해돼. 왜냐 하면 나도 작년에 눈을 다쳐 잠깐 앞을 못 본 적이 있었거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불편했어.

- ① 작품에 나타나는 외적 갈등을 요약했다.
 ② 작품 속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비판했다.
 ③ 작자가 미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④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물의 행동에 공감했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층 주인이 바뀐 후 우리 가족은 한 달 동안 위층의 정체를 모를 소음에 시달린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답게 경비원을 통해 조용히 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자 나는 위층에 주의해 줄 것을 전해달라고 경비원에게 다시 부탁한다. 그 후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라는 경비원의 전갈을 받는다.

나는 ㉠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 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더러 어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 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폭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 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리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뭇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딱 채우며 ㉣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A]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 오정희, 「소음 공해」-

23.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떠오르는 대로 관련이 없는 사건들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다.

24. ㉠~㉣ 중,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소음을 유발하여 ‘나’와 위층 여자의 갈등의 원인이 됨.
 ○ 위층 여자의 처지를 알게 함.
 ○ 위층 여자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됨.

- ① ㉠ ② ㉡ ③ ㉢ ④ ㉣

25. 윗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A]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안함 ② 우쭐함 ③ 부끄러움 ④ 당황스러움